

시선

사설

6월 항쟁 30년, 청년 벽화 28년
민주주의를 다시 고민하라

6월 9일,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벽에 그려진 ‘청년’ 벽화 복원 사업이 완료됐다. 낡고 흐릿했던 벽화는 선명한 빛깔을 찾았다. ‘팔뚝이’라는 이름이 더 친근한 청년 벽화는 지난 세월 민주화 운동의 흔적이다. 술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배움터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그림을 그렸다.

과거의 대학은 그랬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불꽃이 타오르는 가운데 건물에 벽화를 그리고 목소리를 내며 사회의 변혁을 이끌 수 있는 장이었다. 대학생은 거리로 나가 최루탄에 맞았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이름을 댈 수조차 없는 많은 이들이 6월에 흘린 피땀은 민주주의가 되어 이 땅을 적셨다. 그 결과로 군부 독재는 물러나고 제도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이 땅에 찾아왔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당연한 것이 됐다. 민주주의는 우리 삶을 결정하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됐다. 사람들은 당연한 듯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벽화의 빛도 바래갔다. 빛바랜 벽화는 학내의 풍경으로 박제되고 그 의미를 되짚는 이들은 드물어졌다. ‘팔뚝이’에 담겼던 시대의 의미를 전하는 이는 사라졌고 심지어는 ‘빨갱이’와 같은 그릇된 의미로 와전되기도 했다. 지난세기 말에는 문리대 외벽공사를 진행하며 철거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청년 벽화는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다른 대학에 그려졌던 벽화들은 항쟁이 사라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건물에 자리를 내 줬다.

그동안 대학도 빛을 바랬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학문 기관은 학생의 취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가 쥐고 흔드는 지원 사업에 정책을 바뀌가며 일희일비해야 했다.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기 급급한 사이,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은 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됐다.

시대가 다시 변했다. 시민은 촛불을 들었고 광장에 몰려가 지난 10년간 억눌렸던 목소리를 터트렸다. 참여의 의미가 되살아났고 변화를 경험했다. 경험을 통한 학습의 효과는 강렬했다. 대표자를 앉히는데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정보를 찾고 위정자를 감시하며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한 2017년의 6월에 청년벽화가 색을 찾았다. 20여일에 걸친 복원작업의 결과다. 동문, 학생, 직원이 주축이 돼 6월 민주항쟁 30년의 의미를 다시 짚었다. 선명해진 벽화를 바라보며, 30년 전의 6월을 돌아보며 다시금 대학에 대해 생각한다. 작금 우리사회의 대학은 지난 겨울 과외수업을 통해 성숙해진 민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

당장 술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늘도 비좁은 공간에 부대끼는 이들이 많지만 공간 이전 계획은 안개 속이다. 부조리를 자정해 나가는 학생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관행과 관습으로 운영되는 학생회도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과정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청년이 지켜본 30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세월호 막말’ 파문 일어

해당 강사 공개 사과

미디어 여론동향 2017. 5. 29 ~ 6. 11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서울캠) 전공수업 강사가 강의 도중 “세월호 사건에서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은 카카오톡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논란이 됐다.((1보) ‘세월호 막말 논란’ 강사 수업 녹취본 공개/대학주보 온라인, 2017.5.30)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매체는 우리학교 강사가 4월 13일 수업 중 “세월호 학생들이 탈출할 생각은 안하고 카카오톡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급이 알려지며 ‘세월호 희생자의 피해 원인을 개인의 행동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시의적으로 민감한 이슈일 뿐 수업 내용상 허용 가능한 수준이다’는 관점

만평



이 주의 주제 - ‘빅뱅에서 문명까지’의 미래

빅문, 변화는 있되 변함은 없기를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지난 한 학기 동안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 짚어보기’ 연재를 통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빅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짚었다. 그 내용은 빅문의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연재된 기사만을 읽다보면 빅문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세상에 나온 미숙아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접한 빅문은 ‘자라나는 아이’였다. 취재를 거듭하며 현행 빅문의 많은 부분은 처음부터 학생들을 위해 설계되고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빅문이 시작되고 이제 겨우 세 학기가 지났을 뿐이지만 그간 꾸준히 문제를 보완하고 개선하며 자라나고 있었다.

처음으로 도입된 과학중핵이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았다. 자라나는 아이가 완벽하지 않듯, 이제 시작인지 얼마 안 된 빅문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해당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 당장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빅문 자체를 폐지하거나 핵심 시스템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빅문의 도입 취지를 저버리는 일이자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를 함양할 기회를 앗아가는 것과 다름없다.

이 부딪히고 있다.

이후 지난 1일 수업에서 해당 강사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다.((2보) “과제 의도 제대로 전달 못한 잘못 인정한다”/대학주보 온라인, 2017.6.1) 그는 “제도와 시스템 등 여러 측면이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 한계도 있다고 생각해 이번 과제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제의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잘못을 인정했다. 강사는 학교 측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전달했지만 학교 측은 이미 학기 말을 앞두고 있고 수업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남은 수업을 마쳐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학과는 지난달 29일 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펼쳤으며, 오는 14일 학과장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공정화를 열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한 학과의 공금 운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저희는 학과 공금의 행방을 모릅니다’라는 글(#경희숲_22181, 2017.6.1)의 글쓴이는 ‘3월, 과장을 주문했고 많이 늦어져 5월 초에 받았다. 이에 대한 보상금이 있을 거라는 과대의 공지가 있었는데 이후 과대의 말이 맞지 않는다’고 썼

빅문을 개선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학본부의 지원’이다. 취재 중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 부족’을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관계자가 많았다. 그들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지만 현실의 벽이 빅문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학교가 내놓은 ‘자랑스러운’ 중핵교과이며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원의 부족으로 빅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지금의 상황은 아이러니다.

지원 부족은 학생들의 불만과도 직결된다. 학생들이 제기하는 불만의 대부분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니 미봉책으로 ‘행정편의적인 방법’을 꺼내게 된다. 자연의 이해와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킨다는 빅문의 본래 취지는 점차 빛이 바래다. 가치를 잃어가는 빅문을 듣는 학생들은 이를 수강해야 할 필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빅문을 귀찮지만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치부하지 말았으면 한다.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과학의 관점을 배우고 인문학과 의 접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애정 어린 시각으로 함께 해줄 것을 희망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빅문은 앞으로도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며 변화할 것이다. 막상 다음 학기만 해도 많은 부분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한 학기에 걸쳐 달려온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연재를 마치며, 변화는 있되 변함은 없기를.

다. 글쓴이는 ‘과대가 공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지 않고 금액을 속이며 계속 말을 바꿨다’며 ‘업체에서 둘러싼 자연 보상금 35만 원의 행방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대화방 캡처도 첨부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50개의 ‘좋아요’를 받은 이 글에 학생들은 ‘안 들켰으면 뒷주머니 찔거나 축제 때 본인이 선심 쓰듯 썼겠지?’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해당 과대는 논란이 계속 되자 결국 사퇴했다.

정연모(전자공학) 교수가 ‘하수도 탐색을 위한 드론 제어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출원했다.(드론이 하수도를 조사한다/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6.2) 특허는 사람이나 기존 CCTV 로봇이 진입하지 못하는 하수도 구간에 드론을 투입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 교수는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드론 경쟁력 강화와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특허에 착안했다. 그가 제안한 드론은 하수도 내 360도 영상 촬영과 퇴적물 유무 판단, 유해가스 수치 파악 등이 가능하다. 그동안 정 교수는 ‘고속도로 2차사고 방지를 위한 드론’, ‘생체정보 연동 드론 제어’ 등 17건의 드론 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했다.

나를 이기고 진심으로
타인에게 다가갈 시대정신

세시봉

기호웅 (편집장)



현충일과 6.10민주항쟁 기념일이 지났다. 두 기념일의 모습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배우 이보영 씨가 낭독한 헌시는 우리나라의 쓰라린 상처의 역사에 다시금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다. 지난 9일 교내에서 진행된 문과대 청년벽화 복원행사에 참여한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발언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남은 자들의 책임을 무겁게 일깨웠다.

정치적 이슈들이 쟁점화 될 때, 좌우 대립은 우리나라 역사적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으로 여겨졌고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환멸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런 흐름은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정책·공약과 가치·비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뉴스들은 지난 몇 년 전의 뉴스들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과 이전 대통령과 다른 행보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다.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이 당장 해소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내일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주류에서 이탈한 ‘비주류’가 바로 그들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참 많은 이들의 희생의 결과물이었다. 침체의 시기엔 희생과 침묵을 강요했고, 부흥의 시기엔 역할과 대우를 무시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성이나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외하고, 재기할 수 없는 파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회적 안정과 복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와 학생들에게 정의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픔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개인은 여러 성장통과 사연을 거치며 오늘을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아픔에만 집중한 나머지 타인의 아픔을 무시하곤 한다. 인간의 본성이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류의 논리와 흐름만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왔다. 이에 따라 발생했던 수많은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특수한 개인의 일이라 여기면 안 된다. 문제의 원인을 바로보고 고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며, 또 다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인간다움’이란, 결국 타인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2007년 폐간한,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통해서도 알려진 <라이프(LIFE)>지의 모토는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말이라 생각한다.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자. 학내사안에서부터. 시간강사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장애인 학생, 유학생 등 아직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기호웅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정 02-441-7317(미래2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921